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철도지원사업 순항 중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전 구간 착공 완료!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원사업인 원주~강릉 철도의 강릉시 도심구간 2개 공구에 대해 지난 3일 계약을 체결했다. 원주~강릉 철도사업은 지난 '12년 평창군을 통한 시작으로 서원주~남강릉(12개 공구)을 착공해 2017년 완공 목표에 맞추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엔 착공하는 나머지 2개 공구는 2013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강릉시 도심진입 방안 등 논란이 있어 지난 3월 14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에서 기존 강릉역 활용 방안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본부 관계자는 "사업이 완공되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강릉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올림픽 비상상황의 접근성도 향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강릉시 도심구간은 뒤늦게 결정했으나 이미 착공한 구간과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말 완공을 위해 공기관리 대책 등을 수립,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오송역 인근 '금개구리, 땀방이' 이주

- 멸종위기종 환경단체와 공동조사 통한 보호대책 마련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오송역 인근 「철도중합시험선로」 사업부지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땀방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단체와 공동조사를 통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본부는 그간 철도건설 시 천산산 도롱뇽 보호대책 요구 등 환경단체의 민원제기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시공간 연장, 사업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철도중합시험선로 구간은 환경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착공 전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생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서식 환경이 양호한 장소로 멸종위기종 이주 등 보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금개구리에 대한 서식지 및 개체 조사를 한데 이어 장마철이 도래하면 땀방이에 대하여도 정밀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확보할 계획이다.



파주·운정지구 역 신설

- 경의선 '야당역' 내년 10월 개통 예정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및 지역주민들에게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의선 야당역사를 다음달 8월에 본격적으로 착공해 2015년 10월말 개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신축하는 야당역사는 운정역과 탄현역 사이의 야당동 일대에 위치하며, 나공사가 사업비 270억원을 전액부담하고 우리 공단이 건설하는 수탁사업으로 역사건축과 승강장, 선상 연결로가 건설될 계획이다. 본부는 야당역 교통광장에 버스·택시승강장을 설치하고 역사까지 캐노피를 설치하여 눈·비를 피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 중이다. 또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역사를 만들고 있다. 조순형 건축설비과장은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야당역이 2015년 10월 개통되면 전철역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역주민들이 수도권 전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횡단 지하차도 설치로 지역발전 및 통행불편 해소

- 경부선 구미~약목역간 상미교교 확장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식)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1934년 1월 설치해 노후된 경부선 구미~약목간 상미교교를 확장하는 지하차도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열차가 운행 중인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차도와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연장 40m, 폭 20m의 4차선으로 설치되며 사업비 약 80억원 중 공단이 75%, 구미시가 25% 부담하여 올 8월 설계에 착수하고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철도인해 단절된 지역 사회의 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지역주민 3만여 명의 이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된 철도시설을 개량하여 철도편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영역 굴다리, 화려한 새 옷 입는다!

- 서울시와 합동으로 벽화그리기 및 조명 설치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철도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용산구 남영 전철역 굴다리의 철도벽면 및 통로를 화려한 꽃무늬로 새 단장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꽃으로 피다-화(花)려한 손길' 캠페인에 남영 전철역 철도벽면과 통로를 환경개선 공사로 제공하고 서울시는 이 공간에 담배꽂이 벽화그리기, 굴다리 환경미화 및 조명등 교체 등을 시행한다. * 벽화 2개소 48㎡(144㎡), 통로 2개소 74㎡

본부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행정 칸막이 제거를 통한 상생으로 굴다리를 주로 이용하는 인근 12개 초·중·고·대학생, 철도이용객 및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사회공헌활동 기업과 손잡고 철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휴부지 민간 임대 설명회 개최

- 수도권지역 34개소 39필지 45,708㎡ 부지 민간 공개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철도유휴부지의 임대를 원하는 국민들이 쉽게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지난 11일 서울역 인근 본부 3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휴부지는 도심지역의 역 주변이나 선로연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뛰어난, 34개소 39필지(45,708㎡)가 대상이며 판매시설·적치장·주차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부 관계자는 "유휴부지 임대 사업으로 국민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필요한 부지를 이용할 수 있고 공단은 유휴부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부채를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를 위한 유휴부지 자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 공지 사항 또는 수도권본부 재산운영부(전화 : 02-788-5111~2)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영덕간 영덕교 강박스 및 IPC거더 거치

- '16년말 포항~영덕 구간 완공에 차질 없어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 중 현재 공사중인 포항~영덕 구간 영덕정거장 중정부에 국도7호선과 국도10호선 연결도로 위를 횡단하는 영덕교의 상부 거더(강박스 50m 1경간 및 IPC 35m 4경간)를 지난 30일 성공적으로 설치완료 했다.

이번 영덕교 교량공사는 상부 거더 거치 완료 및 향후 슬래브 타설 등 후속작업을 완료해 2016년말 완공예정인 포항~영덕 구간 철도건설의 초석을 다지며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201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덕~삼척 구간 공사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부 관계자는 "포항~영덕구간 철도 공사가 완공되면 서울~포항간 KTX와 연계하여 포항, 영덕 등 지역주민들의 철도이용이 편리해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포항~영덕구간 철도 공사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을 통과하는 영덕교는 전체길이 190m 중 국도와 국도 연결도로 및 못골천을 횡단하는 현상 여건을 고려해 주변 지형 저축을 최소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정거장 교량임을 감안해 포항~영덕 구간 중 경간 길이가 가장 길고 (강박스 50m), 미관이 수려한 형식을 선정했다. 시공과정에서는 도로 시설물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세부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의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수반했다."



호남고속철 하남~광주송정 궤도부설 완료

- 주민편의 위해 연결도로·육로 등 7개소와 공원 조성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호남고속철도 하남 광주송정 구간의 노반공사를 완료, 지난달 30일까지 궤도부설을 끝내고 오는 8월부터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시험운행을 가동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하남역~광주송정역 구간(L=6.7km)은 기존 호남선(일반철도) 2개와 고속선 2개 및 광주차량기지 입입선 등 5개 선로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의 2개 호남선로를 이설하고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5개 선로폭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총 공사비 2,23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광주송정역사는 여객과 화물을 동시 취급하였으나 화물 전용인 하남역사를 신설함에 따라 광주송정역은 여객전용으로 편의시설을 대폭 늘리고 시에서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새로운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는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철도도 단절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및 소촌동 지역과 하남택지개발지구 및 송정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5개소, 과선교 1개소, 보도육교 1개소와 하남~광주송정간 축면도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광주송정초등학교 주변에는 주민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다. 또 기존 호남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도 인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도심지역에 설치중에 있다.

이 본부장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시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국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휴부지 개발, 민간참여 위한 설명회 개최

- 호남본부, 17개소 63필지 225,604㎡부지 민간 공개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관내 철도부지 중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17개소 63필지 (225,604㎡)의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30일 본부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부지는 관내 유휴부지 중 활용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차장, 물차장, 태양광발전, 물류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광주시 2개소(14,098㎡), 전남 8개소(116,446㎡), 전북 7개소(95,060㎡) 지역이며, 대상 부지에 관한 세부 정보는 6월 23일부터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해왔다.

본부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마케팅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사용자편자자 현장설명회 요청하면 본부 직원이 직접 현장안내도 할 계획이다. 철도 유휴부지 개발 참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호남본부 재산부(061-840-5048)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역 대체시설 공사 시행

- 여객 및 화물취급 시설 안인역, 정동진역 등으로 이전 배치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중 강릉 도심 구간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현 강릉역의 여객·화물 취급 시설을 안인역 안인역, 정동진역, 옥계역, 동해역 등으로 이전 배치하는 대체시설공사를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릉도심 구간은 강릉시 도심구간을 가로지르는 기존 철도를 건너고 그 지하에 신설철도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는 오는 9월부터 강릉역 이용이 중지되며 여객 및 화물물리는 정동진역 및 안인역까지만 운행된다.

본부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강릉역 이용이 중지되는 9월 전에 강릉역 대체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열차 운행 중지기간 동안은 강릉역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강릉시에서 정동진역에서 강릉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강릉도심 지하화 공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 입찰공고에 이달 초에 업체를 선정하고 열차운행이 중지되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2017년 말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완공과 강릉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존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현재의 강릉역 기능을 안인 등 인근 역으로 이전하는 대체시설공사가 올 8월말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만큼 안인역, 정동진역, 옥계역, 동해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